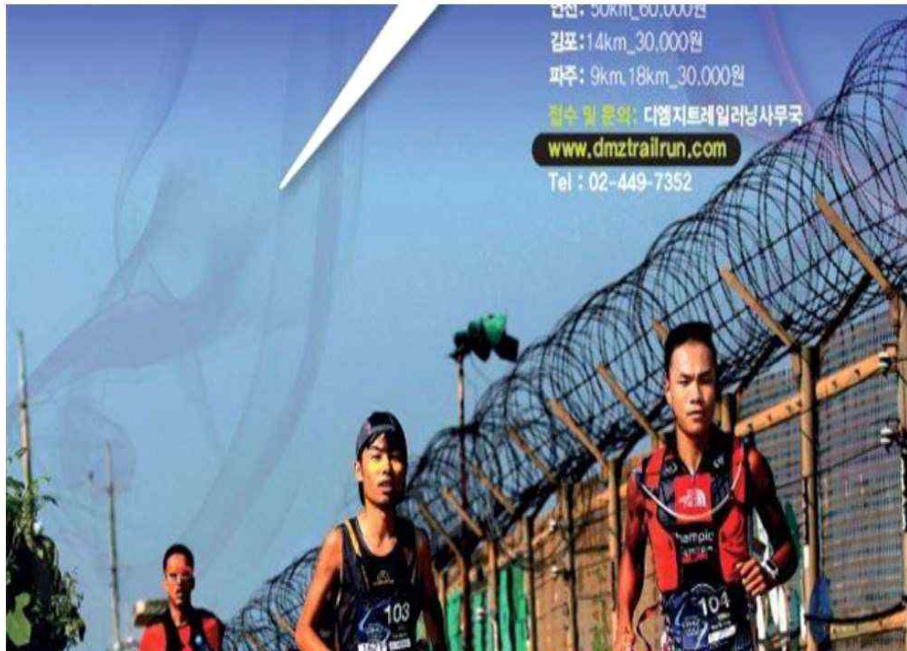


2018. 6. 12. [화] 언론보도

경인방송

2018-06-11 00:00

경기도, 다음달 31일까지 '2018 DMZ 트레일 러닝' 참가자 모집



2018 DMZ 트레일 러닝 포스터<사진=경기도>

[경인방송=한준석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31일까지 DMZ 일원 100km를 누비는 아웃도어 스포츠 '2018 DMZ 트레일 러닝 (Trail Running)'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트레일 러닝은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 숲 등을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일종의 산악 마라톤입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7일부터 사흘간 DMZ 일원 평화누리길과 산악지대에서 개최되며 참가자들의 역량에 맞춰 100km, 김포 14km, 연천 50km, 파주 18km·9km 코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www.dmztrailrun.com)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100km·50km·18km는 만 18세 이상, 14km는 만 13세 이상, 9km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참가비는 100km 30만 원, 50km는 6만 원, 14km·18km·9km는 3만 원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DMZ 트레일 러닝 사무국(02-449-735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hjs@ifm.kr

한반도 허리 DMZ 올 가을 달려보자

경기, 트레일 러닝 참가자 모집

한반도의 허리 DMZ 일원에서 초가을의 기운이 번질 9월 'DMZ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린다. DMZ 트레일 러닝은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기북부 DMZ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 행사다.

11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DMZ 트레일 러닝은 산길과 숲 등 자연을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아웃도어 스포츠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일반 도로를 달리는 마라톤보다 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올해 대회는 경기도 지역 DMZ와 인접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다. 9월 7~9일 사흘간 DMZ 일원 평화누리길과 인근 산악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회는 참가자들의 능력에 따라 100km, 김포 14km, 연천 50km, 파주 18km·9km 코스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중 100km 코스는 대회 기간 3일 동안 스테이지 방식(다단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째 날 김포 32km, 둘째 날 연천 50km, 마지막 날 파주 18km를 나누어 달린다. 또 당일 코스(7일 김포 14km, 8일 연천 50km, 9일 파주 18km·9km)에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100km·50km·18km는 만 18세 이상, 14km는 만 13세 이상, 9km는 나이 제한이 없다. 참가비는 100km 30만원, 50km 6만원, 14km·18km·9km 3만원이다.

/파주=이대희 기자

경기도 'DMZ 트레일 러닝' 참가자 모집

9월7~9일 평화누리길 등서 열려
100·50·18km 등 코스로 운영

경기도가 DMZ 일원 100km를 누비는 아웃도어 스포츠 '2018 DMZ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트레일 러닝은 산길·숲 등을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아웃도어 스포츠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마라톤보다 더 대중적인 스포츠다.

올해 대회는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

사가 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DMZ 일원 평화누리길 및 산악지대에서 열린다.

대회는 참가자들의 역량에 맞춰 100km, 김포 14km, 연천 50km, 파주 18km·9km 코스로 운영된다.

100km 코스는 9월 7~9일 3일 동안 스테이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째 날 김포 32km, 둘째 날 연천 50km, 마지막 날 파주 18km를 달린다.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dmztrailrun.com)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100km·50km·18km는 만 18세 이상, 14km는 만 13세 이상, 9km는 나이 제한

이 없다.

참가비는 100km 30만 원, 50km는 6만 원, 14km·18km·9km는 3만 원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1~3위 입상자에게는 상패가 주어진다.

100km코스 참가자들의 경우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파주)와 고대산 자연휴양림(연천)에서 숙박하게 된다.

한편, DMZ 트레일 러닝은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가득 품은 경기북부 DMZ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2016년부터 개최했다. 최화철기자

기호일보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K06면 종합

DMZ 산악지대 달리며 땀 흘려볼까

도 '트레일 러닝' 참가자 모집
파주·연천 등 코스별로 운영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DMZ 일원 100km를 누비는 아웃도어 스포츠 '2018 DMZ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다. 9월 7일부터 9일까지 DMZ 일원 평화누리길 및 산악지대에서 열리며, 참가자 역량에 맞춰 ▶100km ▶김포 14km ▶연천 50km ▶파주 18km·9km 코스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중 100km 코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스테이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날 김포 32km, 둘째 날 연천 50km, 마지막 날 파주 18km를 나눠 달린다. 당일 코스(7일 김포 14km, 8일 연천 50km, 9일 파주 18km·9km)도 준비돼 있어 원하는 날짜와 코스에 참가할 수 있다.

현재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www.dmztrailrun.com)를 통해 접

수 가능하며 ▶100km·50km·18km는 만 18세 이상 ▶14km는 만 13세 이상, 9km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다.

참가비는 ▶100km 30만 원 ▶50km는 6만 원 ▶14km·18km·9km는 3만 원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1~3위 입상자에게는 상패가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DMZ 일원 코스를 달릴 수 있으며, 100km 코스 참가자들의 경우 민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파주)와 고대산 자연휴양림(연천)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

한편, 'DMZ 트레일 러닝'은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가득 품은 경기북부 DMZ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2016년부터 개최해 온 대회다. '트레일 러닝'은 산길·숲 등을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아웃도어 스포츠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도로에서 달리는 마라톤보다 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
안유신 기자 ays@